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선다

### 전주시, 9월 25일까지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주시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 또는 6학기 이내 휴학생으로,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며, 올해부터 생활비 대출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국기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

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자는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전주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전주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을 오는 11월까지 확정해 대출계좌와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여부와 상환금액은 지원 완료 후 오는 11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대출계좌별로 지원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

에 전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개해왔다.

지원 방식은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형태로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으로 대학생들이 사회 진입 전부터 지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서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전주시가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자주 재원 확보 위한 특별 체납징수 나서

### 전주시, 9월 말까지 '하반기 특별 체납징수기간' 운영

전주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 등으로 늘어나는 체납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2024년도 하반기 특별 체납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122억 원(지방세 96억 원, 세외수입 26억 원) 징수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모든 세입부서에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촉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 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모든 세입부서에 특별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단 공개, 출국금지, 감치 신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의뢰를 추진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해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성실, 전주시 소외계층 위한 의류 4356벌 기부



췌성실(대표 정태두)은 26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3100만 원 상당의 성인·아동의류 4356벌을 기부했다.

(췌)성실(대표 정태두)은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3100만 원 상당의 성인·아동의류 4356벌을 기부했다.

발탁동에 위치한 췌성실은 유·소아 및 성인 의류를 생산해 오다 현재는 마스크와 성인복, 골프웨어까지 전문 생산하는 기업이다.

기부된 의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에 위치한 아동·여성·다문화 시설을 포함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태두 췌성실 대표는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 영화 보며 덕진구 발전 위한 친목·화합 다져

### 덕진회·덕진구청과 함께하는 한 여름밤의 영화데이트... 성과·비전 공유

전주시 덕진구 소재 기관·단체·협회·기업체·사업체 대표로 구성된 덕진회(회장 채창수)가 지난 22일 전주시네마타운 3층 8관에서 2024년 8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는 덕진회 임원진 및 회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한병삼 덕진구청장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와 덕진구 청원, 덕진구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그간 덕진회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영화를 관람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채창수 덕진회 회장은 "덕진회 회원들과 더불어 덕진구 청원 및 구민에게 덕진회의 성과와 비전을 나눌 수 있어 뿌듯했고,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덕진회는 덕진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병삼 덕진구청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덕진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덕진회와 덕진구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서로 힘을 합쳐 덕진구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기관·단체·협회·기업체·사업체 대표로 구성된 덕진회(회장 채창수)가 지난 22일 전주시네마타운 3층 8관에서 2024년 8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나아가자"고 말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덕진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덕진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덕진구 발전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진회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전주시와 덕진구의 주요 정책 및 각종 행사를 알리는 데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 민원서비스 향상 위한 친절교육

### 전주시 완산구, 구청 민원실 직원 대상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26일 구청 민원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친절 교육은 최근 다양한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사례 위주로 구성하여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26일 구청 민원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배희곤 구청장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성과 함께 몸에 베인 친절함은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해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산구는 매월 정기적으로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대 친절교육 및 19개 동주민센터 대상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업무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해오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해진 민원에 정확히 대응하고, 친절 마인드의 중요성을 일깨워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